

출산·육아 가치관 재조명을 통한 육아문화 개선 방안

김동훈 부연구위원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제도·비용 지원 뿐 아니라 인식·문화 개선이라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고는 일반국민들의 육아문화와 관련한 가치관을 부모됨, 결혼 및 자녀양육관, 자녀 양육의 가치를 중심으로, 특히 성, 연령, 결혼여부, 자녀유무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 전달 및 확산, 부모교육 의무화,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 노력,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1. 서론

정부의 다양한 출산·육아정책들이 가정과 사회, 보육과 유아교육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스며들고 건강한 육아문화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육아정책 적용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미비한 보육·유아교육 환경이 육아정책의 적용에 장애가 되기도 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관행은 문화인 동시에 장애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단기간에 변화되기 어려운 육아문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식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정책개발 등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 여론조사를 통해 육아에 대한 의식 조사와 함께 정책수요자의 요구에 맞

는 정책을 개발한다면, 중장기적 차원에서 육아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육아문화는 단기간에 변하기 어려운 반면, 육아의 방법, 형태 등의 방식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 속에서 육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초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요구된다. 육아정책은 모든 국민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 함께 고민해야 하는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육아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향후 육아정책의 투자방향과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에 본고는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국민들이 성, 연령, 결혼여부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부모됨, 결혼 및 자녀양육관, 자녀 양육의 가치에 있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김동훈·이재희·이혜민, 2017)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육아 관련 가치관의 변화와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부모됨

가. 부모됨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들은 비교적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

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다(4점 척도 중 3.27점).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됨의 가치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50~60대 이상의 중노년층에 비해 10~20대의 젊은 응답자의 경우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부모됨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

〈표 1〉 부모됨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행복하고 기대되는 일이다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3.27	3.53	3.45	3.35
성별				
남자	3.32	3.43	3.40	3.35
여자	3.23	3.64	3.50	3.34
t	3.90***	-10.72***	-4.51***	0.71
연령				
15~19세	3.06	3.64	3.58	3.34
20대	3.03	3.61	3.63	3.30
30대	3.25	3.52	3.51	3.20
40대	3.33	3.50	3.45	3.36
50대	3.37	3.52	3.34	3.43
60대 이상	3.45	3.46	3.29	3.42
F	29.87***	5.94**	27.29***	11.85***
혼인 여부				
미혼	2.95	3.59	3.59	3.30
배우자 있음	3.43	3.50	3.38	3.36
배우자 없음	3.29	3.52	3.43	3.46
F	169.18***	7.46**	41.91***	5.34**
자녀 유무				
유	3.44	3.51	3.46	3.37
무	3.08	3.57	3.35	3.28
t	6.15***	-2.73**	3.59***	1.79

주: 각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임('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전적으로 동의함' 4점).

* p < .05, ** p < .01, *** p < .001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점 척도 중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했다. 이는 이미화 등(2015)의 연구에서도 부모교육 제도화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¹⁾

한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4점 척도 중 3.45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특히 10대의 경우 3.58점, 20대의 경우 3.63점으로, 부모로서의 경제적 준비에 있어 중노년층보다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다. 또한 결혼하지 않는 경우에 부모됨에 있어 경제적 준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9점).

‘자녀가 영유아일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장의 경우 3.35점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냈는데, 20~30대의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영유아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특히 젊은 연령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가족 형성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을 최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심화되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나. 영유아 부모의 육아 및 가사 분담 인식

일반국민은 이상적인 자녀양육 분담비율로 4.26:5.74(부:모), 가사 분담비율은 4.16:5.85(부:모)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제 분담비율을 조사한 결과, 실제 자녀양육 분담비율은 3.14:6.86(부:모), 실제 가사 분담비율은 3.19:6.81(부:모)로 나타나, 이상과 실제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다. 특히 여성들이 지각하는 부부간 자녀 양육 분담 비율의 경우 2.75:7.25(부:모), 가사의 경우 2.64:7.26(부:모)로 남녀 전체의 평균치보다 더욱 여성에게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통계청 조사에서 ‘가사분담은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5%인 반면, 실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17.8%, 여자 17.7%로 나타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²⁾ 또한 자녀가 있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분석한 신윤정(2015)의 연구에서도 1999년부터 2009년의 10년 사이 남성의 가사노동과

〈표 2〉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 비율에 대한 이상과 실제

단위: 비율, (명)

구분	자녀 양육	가사	사례수
	아버지:어머니	아버지:어머니	
이상 분담 비율	4.26:5.74	4.16:5.85	(3,000)
실제 분담 비율	3.14:6.86	3.19:6.81	(501)

1)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김의향 외(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 통계청.

자녀 돌봄 시간은 각각 하루 7분씩 증가하였지만, 2009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204분으로 남성의 7.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이삼식 등(2007)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가족 내에서 성별분업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분업적 역할관은 여전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⁴⁾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근로 문화 개선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며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 증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사와 자녀양육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3. 결혼 및 자녀양육관

본고에서는 결혼 가치관, 결혼과 출산, 적정 자녀 수, 자녀에 대한 필요성,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남성의 경우 결혼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7.8%이상 높게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45.1%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2015년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실태조사(이삼식 외, 2015)에서 나온 결과보다도 더 낮게 나타났다.⁵⁾ 또한, 20~30대 응답자가 50~60대 응답자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당분간 비혼현상이 증가 또는 유지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3〉 결혼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	사례수
전체	13.6	43.0	40.1	3.2	(3,000)
성별					
남자	19.8	48.0	29.6	2.6	(1,522)
여자	7.2	37.9	50.9	3.9	(1,478)
$\chi^2(df)$	195.06(3)***				
연령					
15~19세	10.2	28.6	55.1	6.1	(98)
20대	8.7	41.2	43.9	6.2	(599)
30대	9.5	41.6	45.4	3.4	(526)
40대	9.6	40.1	47.8	2.4	(623)
50대	16.3	44.0	36.9	2.7	(661)
60대 이상	26.2	51.9	21.3	0.6	(493)
$\chi^2(df)$	198.57(15)***				

*** p < .001

3) 신윤정(2015). 저출산 시대의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275호.

4) 이삼식·윤홍식·장보현·박중서·최은영(2007)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응 연구: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총괄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이삼식·박중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4〉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별로 동의하지 않음	대체로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함	사례수	평균
전체	29.2	44.6	23.3	2.9	(3,000)	2.00
연령						
15~19세	17.3	37.8	39.8	5.1	(98)	2.33
20대	23.0	42.2	29.9	4.8	(599)	2.17
30대	25.9	42.0	28.5	3.6	(526)	2.10
40대	25.7	45.7	27.1	1.4	(623)	2.04
50대	34.0	48.0	15.6	2.4	(661)	1.86
60대 이상	40.6	45.4	12.2	1.8	(493)	1.75
$\chi^2(df)/F$	141.80(15)***					24.50***
혼인 여부						
미혼	19.1	42.3	33.6	5.0	(922)	2.25
배우자 있음	34.1	45.4	18.5	1.9	(1,922)	1.88
배우자 없음	28.2	47.4	21.8	2.6	(156)	1.99
$\chi^2(df)/F$	131.30(6)**					66.71***

주: 평균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 ~ '전적으로 동의함' 4점으로 산출한 결과임.

*** p < .001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아직까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6.2%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미혼인 경우나 연령이 어릴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볼 때,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25명이었다.⁶⁾ 이러한 결과는 2015년도에 실시한 이삼식 등(2015)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의 결과(약 2명)와 유사하였

다.⁷⁾ 연령이 높을수록 이상적인 자녀 수가 많았다. 또한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생각에서 딸이 1.29명으로 아들 1.16명보다 높아 과거와는 달리 여아 출산을 선호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응답자의 약 80%는 자녀가 있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혼인 경우는 없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36.1% 수준으로 상당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방하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자녀가 없어도 되는 주된 이유로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였고, 특히 여자가 남자보다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6) 김동훈 외(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Ⅰ). 육아정책연구소. p.87. 〈표 Ⅲ-3-5〉 참조

7)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 자녀의 필요성

단위: %, (명)

구분	꼭 있어야 한다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없어도 무방함	모르겠음	사례수
전체	32.7	45.6	19.2	2.5	(3,000)
성별					
남자	36.9	45.5	15.7	1.9	(1,522)
여자	28.3	45.8	22.8	3.0	(1,478)
$\chi^2(df)$	40.51(3)***				
연령					
15~19세	14.3	45.9	34.7	5.1	(98)
20대	20.9	44.7	30.6	3.8	(599)
30대	30.0	46.0	21.5	2.5	(526)
40대	35.0	42.1	19.9	3.0	(623)
50대	38.6	45.8	14.2	1.4	(661)
60대 이상	42.8	50.5	5.7	1.0	(493)
$\chi^2(df)$	189.95(15)***				
혼인 여부					
미혼	15.1	45.0	36.1	3.8	(922)
배우자 있음	41.5	45.7	11.1	1.7	(1,922)
배우자 없음	28.2	48.7	19.2	3.8	(156)
$\chi^2(df)$	350.25(6)***				

*** $p < .001$

〈표 6〉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양육과 일의 병행	비용 부담	자녀의 심리적 안정	자녀를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	자녀의 학업/ 직업적 성취	기타	사례수
전체	32.5	31.9	10.3	7.3	6.1	11.8	(3,000)
성별							
남자	30.2	36.2	9.3	8.5	6.8	9.0	(1,522)
여자	34.8	27.5	11.4	6.2	5.3	14.7	(1,478)
$\chi^2(df)$	81.62(8)***						

주: 기타의견에는 '나의 개인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것'(5.5%), '자녀의 신체적 건강'(3.1%), '배우자의 무관심/부재'(3.0%), '기타'(0.2%)가 있음.

*** $p < .001$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과 일의 병행, 양육비용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양육비용에 대

한 부담이,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양육과 일의 병행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다.

4. 자녀양육의 가치

자녀양육의 가치로는 양육의 즐거움과 경제적 가치를 조사하였다. 자녀양육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는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무경 등(2016)에서 조사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였다.⁸⁾ 문무경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0~30대의 경우에는 문무경 등(201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월평균 235.33만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소득을 감안한다면 육아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책 제언

앞의 결과에서 보듯이 부모됨, 결혼 및 자녀

〈표 7〉 자녀 양육에서의 가장 큰 즐거움

단위: %, (명)

구분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지켜보는 부모로서의 성취감	자녀와 함께 시간보내기, 여가활동 공유하기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애정과 지지	자녀 돌봄과 지도	기타	사례수
전체	40.1	30.3	27.6	1.9	0.1	(3,000)
성별						
남자	41.5	32.7	22.7	3.0	0.1	(1,522)
여자	38.6	27.9	32.6	0.9	0.1	(1,478)
연령						
15~19세	34.7	35.7	18.4	10.2	1.0	(98)
20대	28.5	43.2	25.4	2.8	-	(599)
30대	34.0	39.7	24.5	1.5	0.2	(526)
40대	37.4	29.7	31.3	1.6	-	(623)
50대	47.7	21.5	30.0	0.8	0.2	(661)
60대 이상	54.8	16.0	27.6	1.6	-	(493)

주: 응답 분포 특성상 통계적 검정은 적절하지 않음.

〈표 8〉 영유아 자녀 양육의 경제적 가치(월 평균)

단위: 만원

전체	연령						영유아자녀 유무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유	무
235.33	258.74	258.21	249.15	234.56	215.67	215.47	247.73	218.48

8)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양육관, 자녀 양육의 가치에 있어서 성, 연령, 결혼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육아문화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출산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전달하고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젊은 연령층은 부모됨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며, 동시에 일반 국민들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가족 형성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젊은 층의 인식이 최근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문무경 등(2016)의 지적대로 경제력 이외에도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 부모됨에 대한 긍정적 가치의 확산 노력이 요구된다.⁹⁾

둘째, 출산 전 부모교육 의무화를 도입함과 동시에 교육 내용에 부모됨과 자녀 양육의 가치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본 조사에서 자녀를 낳기 전에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점 척도 중 3.53점), 특히 10~2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출산 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본 조사에서 부모교육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77.6%로 높게 나타나 부모교육의 제도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부모들이 경제활동 등으로 부모교육을 수강할 시간이나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춤형 가정이나 취약계층 등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의 적극적, 능동적 참여 여건이 어려운 사각지대의 부모들

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등의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자녀양육 및 가사의 공평한 분담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양육과 가사를 분담하는 적절한 비중이 6대 4(어머니:아버지) 정도로 나타나, 남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수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분담수준은 7대 3수준으로 인식에 비해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가사분담은 여전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하여 부부간 역할이 동등한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통적인 남녀간의 역할분화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근로 문화 개선과 출산휴가·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늘어나며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 증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가사와 자녀양육은 가족 내에서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 남녀간 결혼에 의한 전통적 가족의 형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본 조사에 의하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 전통적 가족 구성을 결혼이라는 법적 틀 속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6.2%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혼인 경우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동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자녀출산을 위해 결혼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차츰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9)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